

이런 일이

를 고르되, 충성되고
로 해야 한다.

를 겸한 수령은 모두

(丁道吉)을 비장으로

었는데, 배 1필이 모두

을 발내포(鉢內布)라

쳐온 것을 모두 물리

고 말하고, 거듭 가

두 놀라 이를 믿지 않

며 시끄러웠다. 체제

가 나쁜 배를 받아와

정에 어두운가?”라고

만 어찌 발내포를 모

마땅히 이전의 배를

했습니다. 진실로 부

라고 답하자, 체제공

치지 못하더라도 그

욱 후하게 대접하니

尹光于)를 불러 비장

었다. 창고 관리자가

건들을 장부와 대조

검사하는 날에 말하지 말도록 부탁했다. 방기(房妓)가 뇌물표를 보이니, 비장 윤광우가 “8월에 순장(巡將)이 나오는 날에 나는 당연히 고발할 것이니, 그때까지 배상하여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뇌물돈도 속히 창고에 넣어 그 백분의 일이라도 충당하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물리쳤다. 더 말하지 않았는데 기한이 되자 과연 축난 돈이 모두 채워졌다.

4. 인재의 추천[舉賢]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현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수령의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남구만(南九萬)이 변경지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잘못을 밝히고 돌아올 때 반드시 그곳 인재를 추천한 일이 그가 임금께 올린 보고서(章奏)에 자주 나타나 있다. 대신이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뜻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뜻있는 선비가 백성의 수령이 되었다면 이 뜻을 잊을 수 있겠는가?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나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나라의 통상적인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선한 사람도 덮어두